

2021-06-18 금

신상덕이가 전화를 했구나
날 오랫동안 찾았단다
너무너무 반갑다며 즉시 올라오겠단다
29일 승용차로 올라와서 밤새 마시자고 한다
정용택이도 같이 오겠단다
그래!
결국 22일 화요일 기차로 올라오기로 하였다
기쁘다.

2021-06-22 화

바쁘게 준비하고 태평백화점에 가서 대기
그러나 두 멋진 남자가 나타나질 않아 서성대며 주위 노인들을 보았다.
드디어 용택이의 전화를 받고 용택이와 상덕이를 만났다
아니 이럴수가!
옆에 있던 그 노인들이었다.
이게 웬일~~~
서로가 몰라보고 옆에 있었다니...
마스크 때문만은 아닌 듯
.....
다 늙었구나
대구탕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신나게 대화
그리고 당구를 치며 대화
상덕이가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한다.
나도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다.
고맙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미안해지는구나
날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다니...
주위에서 잘모르기에 중국에 갔거나 죽은 줄 알았단다.
에구구~~~ 미안해라.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웃고 즐기다 보니 4시
헤어지고 난 걸어서 집으로
고마운 친구 상덕

계속 만나자구나

내려가는 상덕이 손에 예슬이가 가져온 카이스트 가습기와 성심당 빵을 들려보내고
기차에 있다는 상덕이와 사기꾼 모습의 전화2로 통화하였다.

ㅋㅋㅋ

날 사기꾼이라 놀려대는 상덕이

전화를 자주 바꾸는 것이 사기꾼의 습성이란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구나.

그나저나 반갑다.

취한다.

그래도 기를 쓰고 6월 29일 내려갈 생각으로 기차표 예매를 하였다.

안양에서 곧장 출발하려했더니 시간이 안되겠다 싶어 용산 출발로 예약

다시 만나 또다시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 꽃을 피우자구나.

다시 반갑다 상덕아!!!

곧 만나자.